Vol.2
2020년 12월 반년간지

제주바투리

제주바투리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바탕인 제주의 인문 사회 자연의 근원을 탐구하는 제주학연구센터의 기관지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제주바투리

ISSN 2733-4937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

제주바투리 Vol. 2

《제주바투리》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바탕인 제주의 인문 사회 자연의 근원을 탐구하는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입니다.

2020년 12월 반년간지



코로나여, 물러나라!

올해는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역병'으로 모두가 고달픈 한 해를 보냈다. 한해를 갈무리하며 새해에는 코로나가 하루 빨리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사진은 제주학연구센터가 올해 처음 실시한 '제1회 제주학아카이브 사진 · 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한진오 씨의 「2019년 성산읍 고성리 영등굿」 중 '용올림'의 한 장면이다.

해상의 안전과 풍어,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영등굿」의 '용올림' 염원처럼, 해산물 씨와 함께 우리들의 염원인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도 함께 솟아올라 코로나가 어서 빨리 물러나길 바란다. 바다의 神 용왕을 향한 심방의 숭고한 염원 속에 일상을 위협했던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는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도 함께 전해지길 소망한다.

신축년, 새해에는 모두 소망일게 해줍서.

성산읍 고성리 영등굿 중 **'용올림'** 장면
(2019, 한진오)

Vol. 2 제주바투리
2020년 12월 반년간지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





02 **열린 창** 편집부

06 **발행인의 글** 김순자

08 **제주학연구센터에 바란다** 손명철

제주학 톺아보기

10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와 제주학** 백영경

12 **지오파크와 떠나는 특별한 지질여행** 강시영·강경민



표지 그림 강요배 作 **노각성 ᄌᆞ부줄**(2015)
'노각성 ᄌᆞ부줄'은 제주신화 「삼승할망본풀이」에서 삼승할망이 하늘을 오르내릴 때 사용하는 줄이다. 생명의 잉태와 출생, 양육과 깊은 관련이 깊은데, '노각성 ᄌᆞ부줄'은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생명줄인 셈이다. 작가는 장수와 다산을 기원하는 제주의 '칠성신앙'과 '노각성 ᄌᆞ부줄'을 연결 지음으로써 제주인의 독특한 생명관을 묘사하고 있다. 노각성ᄌᆞ부줄'과 같이 《제주바투리》가 '제주학과 시민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강요배 서양화가. 민중미술 운동 1세대 작가. 1992년 '제주민중항쟁사-강요배의 역사그림전'을 통해 4·3사건의 실체를 한국사회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함. 제주의 역사와 자연을 주제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음. 화집 《동백꽃 지다》, 예술산문 《풍경의 깊이》 등이 있음.





특집

17 **다시 보는 제4회 제주학대회** 편집부

24 **제주학진흥원(가칭) 타당성 용역 주요 내용 요약** 편집부

26 **제주학 연구 기관 · 단체 탐방** 정광중

제주학 산책

29 **'시민참여형'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길** 조정현

30 **제주어 구술 조사와 인공지능(AI)** 김미진

32 **기록의 재발견, 제주 호적중초(戶籍中草)** 임승희

34 **해녀문화의 기록과 보전** 고은솔

36 **제주가 동아시아 해양문화 교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면** 김선필

38 **2020년 주요 성과**

49 **2021년 주요 사업 일정**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 제주바투리 2호(반년간)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발행인 김순자
편집위원 조정현, 김미진, 김선필, 임승희, 고은솔
디자인 · 인쇄 도서출판 각(064-725-4410)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3층(이도1동)
전화 064-726-5623 팩스 064-747-6140 누리집 www.jst.re.kr

조밭 다지는 '물테우리' 처럼

≪제주바투리≫는 앞으로도 연구자와 도민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제주학연구센터의 '노각성 ᄌᆞ부줄'이 되겠습니다.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장)

2020년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누구나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제주학연구센터는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은 계획했던 사업을 미루거나 취소하게도 하였지만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사업을 수정하여 센터의 안팎을 찬찬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해를 갈무리하며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 ≪제주바투리≫ 제2호를 냅니다. 지난 5월 창간 때 약속했던, 제주학의 내실을 다지고 그 지평을 넓히고 연구진과 도민사회와 소통하겠다는 다짐들이 얼마나 잘 지켰는가를 돌아봅니다.

책 안의 연구 성과를 보면 알겠지만, 지난 한 해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들 사업이 대중들과 얼마만큼 소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자평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10주년을 앞둬 가진 〈제주학연구센터 10년, 종합적 성찰과 그 과제〉 정책 세미나, 〈제주학아카이브 현황 분석과 개선 방향〉 용역 사업, 제주학연구센터 9주년 기념 초청강연, 제4회 제주학대회, 소멸 위기의 제주어 유네스코 분류 10년을 기억하는 '제주어포럼' 등은 도민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기획된, '코로나 시대'의 사업입니다.

제주 속담에 '귀신은 속여도 테우리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테우리'는 소나 말을 많이 부리는 사람입니다. 특히 말을 부리는 '물테우리'들은 조를 갈거나 '산디(밭벼)'를 갈 때, 소유한 말떼를 이용하여 이웃의 푸석푸석한 밭을 다져 결실을 맺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땅을 잘 다져줘야 씨가 잘 발아되어 열매가 튼실하게 여물 수 있습니다. 조나 '산디'를 '볼릴(밟을) 때' 말떼를 부리는 '물테우리'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들에 대한 대접이 융숭한 것도 그 역할이 컸기 때문입니다.

≪제주바투리≫ 2호를 내면서 '귀신은 속여도 테우리는 못 속인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이유도, 일을 함에 있어서 근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조 수확을 위해 '물테우리'들이 땅을 단단하게 다질 때 가졌던 그 마음처럼 ≪제주바투리≫가 제주학의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고 이를 국내외로 널리 뻗어나게 하는 견인차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호는 '열린 창', '제주학센터에 바란다', '제주학 톺아보기', '특집', '제주학 기관 · 단체 탐방', '제주학 산책', '2020년 주요 성과', '2021년 주요 사업' 소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창간호와 달리 책의 크기를 키우고 편집을 달리하고, 지면을 늘려 품격을 더하였습니다. 제주의 역사와 자연을 화폭에 담고 있는 강요백 화백의 '노각성 ᄌᆞ부줄'을 표지 그림으로 쓴 것은 ≪제주바투리≫가 삼승할망이 하늘을 오르내릴 때 사용하는 '노각성 ᄌᆞ부줄'처럼 제주학과 도민사회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충실해 해내겠다는 다짐의 표현입니다. 귀한 작품을 표지 그림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강요배 화백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센터 발전을 위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 손명철 운영위원장님과 백영경 교수님, 새로운 시선으로 제주 지질을 바라볼 수 있게 귀한 글과 사진을 보내주신 강시영 원장님과 강경민 작가, 제주학 연구의 선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제주학회의 어제와 오늘을 소개해 준 정광중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바쁜 가운데도 '제주학 산책'의 지면을 알차게 꾸며준 우리 센터 연구진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제주바투리≫는 앞으로도 연구자와 도민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제주학연구센터의 '노각성 ᄌᆞ부줄'이 되겠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바투리≫를 통하여 '열린 제주학, 따뜻한 제주학, 실천하는 제주학'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 대유행이 종식되어 새해에는 일상을 찾을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지역학 연구 대상으로서 제주를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

손명철(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장, 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교수)

제주학 연구와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제주학연구센터가 내년이면 설립 1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제주학아카이브 구축, 제주어대사전과 제주역사총서 발간, 제주민속 조사 연구와 제주학 지원 사업, 그리고 대외교류 협력 등을 통해 설립 목적에 충실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제 10주년을 맞아 제주학연구센터는 본연의 목적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바로 제주학진흥원으로의 확대 개편이 그것이다. 이 글은 제주학진흥원으로의 발전적 전환에 즈음하여, 지역학 연구대상 지역으로서 제주를 바라보는 다섯 가지 관점을 소개함으로써 제주학 연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인하고 미래 연구 방향에 간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제주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태평양 연안 환태평양 조산대의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화산섬이다. 북반구 중위도 편서풍대 남쪽 끝에 위치하여 여름철에는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고 겨울철에는 대륙성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권에 속한다. 이러한 자연적 조건을 지닌 제주는 지역학 연구 대상 지역으로서 적어도 다섯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제주를 반개방 체계(semi-opened system)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제주는 한반도 육지부와 멀리 떨어져 위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부 지역과의 상호작용이 한반도 내 여타 지역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과는 약 450km, 부산과는 약 290km, 목포와는 약 150km 떨어져 있으며 뱃길로 가장 가까운 전라남도 완도와도 약 85km 정도 떨어져 있다. 거의 20세기 중반까지 외부와의 접촉은 소규모 배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과 물자의 교류에 제약이 많았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중앙관리와 지방토호의 가혹한 수탈, 왜구의 빈번한 침입, 과도한 진상과 부역 등으로 인해 제주를 떠나는 유민의 수가 증가하고 인구가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특산물의 진상과 군액의 축소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1629년 조정에서는 제주도민의 이탈을 금하기 위해 출륙금지령을 내려 200년 이상 외부로의 진출이 불가능하였다. 이처럼 제주는 육지와 격리된 섬이라는 자연적 조건과 출륙금지령 같은 역사적 상황이 이중적인 질곡으로 작용하여 오랫동안 반개방 체계로 존재해왔다. 반개방 체계로서의 제주는 지역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 혹은 외적 변수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그 영향력이 미약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제주학 연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독립변수가 소수이거나 단순할 수 있으며 연구의 용이성과도 관련될 수 있다.

둘째, 제주를 한반도와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도서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은 지역학 연구의 오래된 난제 가운데 하나인 지역 경계선 획정의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다. 연구대상 지역의 공간적 경계 설정 문제는 지역학뿐만 아니라 지역지리 연구에서도 오랫동안 논란이 지속되어온 난제 중 하나이다. 섬으로서의 제주는 제주학 연구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역경계 설정의 난점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

셋째, 제주를 한반도의 가장 남쪽 아열대 기후대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섬 한가운데 해발고도 1,947m에 달하는 한라산이 자리 잡고 있어 고도별로 난대림부터 아고산대에 이르는 다양한 식생이 분포한다. 검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농경지와 무덤들, 중산간 지대에 넓게 펼쳐진 초지와 목장들, 연중 해안에서 물질하는 해녀들의 모습 등은 육지부와는 색다른 제주만의 고유하고 가시적인 생활경관이다. 특히 제주는 문화적인 특이성이 두드러지는데, 언어와 민속, 신화, 관혼상제 같은 일상의례 면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육지부와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는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경관과 문화적으로도 고유한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넷째, 제주를 하나의 독립적인 지방노동시장(local labour market)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제주는 부속도서를 포함하여 현재 약 1,848㎢의 면적에 약 7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일찍이 레버는 영국의 지방노동시장을 연구하면서, 어떤 지역이 하나의 독자적인 지방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5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제주는 이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단위 노동시장 내의 작업장에 고용된 전체 노동자의 70% 이상이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가, 단위 노동시장 내에 거주하는 노동자의 70% 이상이 그 지역 내의 작업장에 고용되어 있는가, 단위 노동시장의 인구는 1만 명을 상회하는가, 인구밀도는 24.7명/㎢를 상회하는가, 면적은 2,023㎢ 미만인가. 지방노동시장은 1990년대 영국이 급격한 산업재구조화를 겪을 때 지역학 연구의 일환인 로컬리티(localities) 연구자들이 가장 의미 있게 주목했던 개념 중 하나이다. 제주는 비교적 작은 규모이지만 지방노동시장의 관점에서도 독자적인 지역학 연구대상 지역으로 유의미하며 연구의 편의성도 큰 편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제주를 전지구적인 보편적 프로세스(global process)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동질적인 경제적 운명공동체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제주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의 육지부와는 다른 자연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와 고용구조, 노동시장 등 경제적인 여건도 상이하다. 이는 전지구적 규모에서 작동하는 보편적, 경제적 프로세스에 반응 혹은 대응하는 국지적 양태(local response)가 육지부의 여타 지역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와 지구촌 시대, 특정 공간 단위가 독립적이고 고유한 하나의 지역으로 설정될 수 있는가 여부는 전지구적인 규모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정 프로세스에 대해 독립적이고 차별적인 반응을 보이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주는 외부의 거대한 도전에 특히 경제적으로 여타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거의 동일한 영향을 받는 공동운명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1990년대 후반 한국을 휩쓸고 간 외환위기 때에 실제로 확인된 바도 있다.

이처럼 제주는 반개방 체계, 독립적인 지역연구 단위, 독특한 자연 및 문화경관, 독자적인 지방노동시장, 그리고 지구적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 공동운명체라는 점에서 지역학 연구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지역학 연구의 모범사례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제주학 연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인해주는 요인이기도 하다. 제주학진흥원으로의 확대 개편을 앞둔 지금 제주학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제주바투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와 제주학

백영경(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20년이 저물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과연 포스트 코로나19시대라는 말을 써도 되나 싶은 시기이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일 년이 다 되어 가지만 코로나19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하루 발생 확진자 1000명대에 이르는 제3차 대유행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고 했던 제주에서도 지역감염이 확산되는 중이다. 백신 접종 개시 소식이 들리면서 종식의 희망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다고는 해도, 내년 한 해는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야 할 거라는 소식이 들린다. 실제로 세계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 것은 2024년쯤으로나 예측한다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포스트는 코로나19와 더불어 살게 된 시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코로나19 이후 시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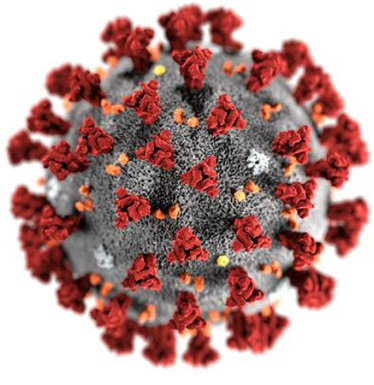
그렇다면 코로나19와 더불어 살게 된 시대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지나간다고 해도 인수공통 감염병의 유례없는 확산이나 빈발하는 기후재난은 올해로 끝나지 않으리라고 한다. 2012년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 증후군), 그리고 2019년의 코로나19는 모두 야생동물들에 있는 바이러스를 사람이 옮아 시작되었다고 한다. 기후변화와 개발의 광풍 속에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파괴되자, 이전에 야생동물을 거처로 하던 바이러스들은 이제 밀집생활을 하는 인간이나 가축들을 새로운 숙주로 삼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일인 것이다. 코로나19 자체가 기후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코로나19를 해결해도 기후위기를 직시하지 않는 한, 위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감염병의 범유행보다 무서운 경제위기, 그 뒤의 기후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기후변화 가운데 정확히 어느 만큼이 인간의 활동에 의해 촉발된 것이고 어느 만큼이 인간 영역 밖의 일인지를 정확히 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계는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변화들로 인해 공기, 물, 흙, 먹거리, 날씨 등 인간의 일상을 지탱하고 영향 주는 모든 요소가 인간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분명하다. 그러니 다른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현재 당면한 위기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닥쳐오는 변화에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했고, 제주에서도 지난 10월 6조 규모의 '제주형 뉴딜'을 통해 그린뉴딜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미국 대공황기의 전면적인 사회경제적 개입정책에서 유래한 뉴딜(New Deal)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사회주체들 간의 새로운 사회계약 혹은 '새판 짜기'를 의미한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결합한다는 '한국판 뉴딜'이나 '제주형 뉴딜'이 등장하게 된 배경 역시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생태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 즉 새판 짜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여곡절 끝에 전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급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 실현 가능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 위기가 역설적으로 촛불혁명 이후 한국사회의 개혁을 진전시키고 새로운 판을 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게 된 맥락이다.

하지만 연이어 닥치는 재난을 감당하기도 만만치 않은 마당에 제대로 된 새판짜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점을 감안해도, 현재로서는 한국판 뉴딜이 기후위기가 촉구하는 삶의 근본적인 대전환으로 이어질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거센 비판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방역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 코로나19로 제기된 사회적 과제들을 풀어가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돌봄 위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응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기후위기, 생태계의 위기, 인간 생명의 위기 그 어느 것에도 제대로 대답하고 있지 못한 데는 삶에서 무엇이 필수적이고 근본적인가에 대한 성찰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성찰이라고 함은 개인적인 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삶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개인들의 각성을 모아 사회적 지식으로 모아내고, 이를 제도적 실천으로까지 끌어가는 실력행사를 말한다.

이런 눈으로 제주학을 돌아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선 이러한 현실의 위기와 미래로의 전환 필요성에 제주학이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비단 제주학 뿐 아니라, 대부분의 인문·사회연구자들이 기후위기나 감염병 범유행과 같은 주제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으나 직접 씨름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제주학의 경우 다양한 인문사회학뿐 아니라 자연과학을 포함하는 융합연구를 지향하고 있고, 제주인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연구를 표방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여러 문제들은 제주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결코 아니기도 하다. 실제로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한다는 것은 단지 사라져가고 있는 어떤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며, 지금 여기의 삶을 다시 해석하고 발견하는 창조적 행위이다. 이제까지 축적되어 온 제주학의 성과들은 현대 문명의 위기를 헤쳐가는 과정에서 거대한 지혜의 보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가 의미하는 현대 사회의 위기를 직시하고 사회의 새판을 짜는 과정에 제주학의 기여가 절실한 시점이다. 제주바투리




수월봉


성산일출봉


서귀포층

지오파크와 떠나는 특별한 지질여행

글 강시영 (사)제주환경문화원장
사진 강경민 사진작가

제주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한라산과 탁트인 바다, 오름, 곶자왈, 세계자연유산과 같은 자연경관은 보물과 같다. 세계농업유산 제주밭담, 돌하르방, 잣성, 신들이 좌정한 신당, 용천수, 올레길은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경관들이다. 이 뿐이 아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여행, 태고적 자연의 신비를 감상하는 지질여행. 지질여행은 지질공원을 뜻하는 지오파크(Geopark)로 떠나는 여정이다.

2010년 10월 4일 새벽, 유럽지질공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그리스 레스보스섬에서 낭보가 날아들었다. 제주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Global Geoparks Network, GGN)으로 인증됐다는 소식. 이로써 생물권보전지역(2002), 세계자연유산(2007)과 더불어 세계 최초로 '트리플크라운'의 영예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제주 세계지질공원은 제주섬 전체를 아우른다. 세계지질공원은 제주의 또다른 이름이다.

2020년은 제주도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지 10년째 되는 해이다. 세계지질공원은 인증 후에는 재인증 절차를 거친다. 세계지질공원은 보통 4년 주기로 엄격한 재인증 심사를 거쳐 브랜드 지위를 이어가는데, 인증뿐만 아니라 유지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인증 과정에 레드카드를 받아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제주는 2014년에 이어 2019년 5월 두번째로 재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제주 세계지질공원은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2020년 현재 44개국 161개소가 인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를 시작으로 청송, 무등산, 한탄강 등 모두 4곳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지질공원 인증 제도를 두고 있다.

제주 세계지질공원은 제주섬 전체를 공간으로 하면서 지질 대표명소를 둔다. 지질 대표명소는 2010년 첫 인증 때 한라산을 비롯 만장굴·성산일출봉·산방산·용머리해안·수월봉·대포해안 주상절리대·서귀포층·천지연폭포 등 9곳이었다. 이어 2014년 재인증 때 우도·비양도·선흘곶자왈(동백동산)이 추가됐다. 2019년 재인증 때 교래삼다수마을이 새로 추가돼 제주지역의 지질 대표명소는 모두 13곳으로 늘어났다.

독일 불칸아이펠의 기억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그때 독일 불칸아이펠로 가서 아주 특별한 경험과 정보를 얻었다. 독일의 중서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세계지질공원 '불칸아이펠(Vulkaneifel)'. 2004년에 처음 불칸아이펠을 찾은 것은 훼손위기에 놓인 서귀포의 '하논'이 계기가 됐다. 당시만 해도 하논 분화구 안에 야구 전지훈련장을 건설하려는 논의가 진행되던 때였다.


한라산 백록담


만장굴


만장굴


산방산 용머리해안 지질트레일

불칸아이펠은 제주의 오름과 마르지형인 서귀포 하논을 떠올리게 한다. 지질학에서 흔히 등장하는 분화구의 한 형태인 '마르'라는 이름은 바로 이 곳 불칸아이펠에서 유래됐다. 수백만~수천만년에서 최후 빙하기인 1만년 전의 지구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아이펠은 '불칸벨트'라고 불리는 350여 개의 각종 화산체와 70여 개에 이르는 마르형 분화구의 고장이다. 불칸아이펠은 2000년 유럽지질공원에 이어 2004년 세계지질공원의 반열에 올랐다. 모두 최초다. 아이펠은 유럽과 글로벌 지질공원 네트워크 태동부터 주목을 받았다. 세계지질공원이 태동한 게 2004년의 일이다.

2004년 불칸아이펠을 처음 찾았을 때만 해도 지오파크를 '지질공원'이 아닌 '지구공원'으로 번역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처음 접하는 용어인데다 프로그램도 낯설었다. 지구공원, 지질공원, 지질관광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은 소중한 기회였다. 제주가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던 2008년에 이곳을 다시 찾아 언론에 지질공원 연재를 하기도 했다.

왜 세계지질공원인가

지질학은 늘 어렵고 전문가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학문으로 인식돼 온 게 사실이다. 일반인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지질학은 지질공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대중화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지질공원은 아름다운 자연경관 위에 자연과 사람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엮어 놓은 공원을 말한다. 지질학자들만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찾아와 즐겁게 배우고 쉴 수 있는 공원이어야 하며, 또한 지질공원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그 속에서 가치를 깨닫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원이어야 한다.

유네스코의 국제보호지역 프로그램 가운데 최근 가장 뜨거운 화제는 세계지질공원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세계지질공원에 열광하는 것은 지질공원이 다른 보호지역과 달리 지속가능한 이용과 활용, 특히 지질관광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전과 교육, 관광 등 세 가지를 추구한다. 법적인 규제나 구속력보다는 하나의 '브랜드'를 부여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도 그렇다.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프로그램은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을 포함한다.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에 비해 역사가 비교적 짧다.

세계지질공원이 설립되기 전 유럽에서는 몇 개의 지질관광이 운영되어 왔으며, 지형·지질자원을 이용한 지질유산의 보전, 교육, 지역 주민의 소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지질관광의 발전은 유럽의 지질공원 설립의 계기가 되었으며 지질공원 제도는 지질관광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지질공원의 개념은 2000년대 초반 유럽의 작은 마을에서 지질관광을 시행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유럽 내의 5개 지역에서 시작된 지질공원들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다른 지역의 장점을 배우기 위해 2000년 유럽지질공원망(European Geoparks Network, EGN)을 결성하였다. 유럽지질공원망의 활동이 점차 확대되면서 2004년 2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지질공원망 학술대회를 통해 세계지질공원망(Global Geoparks Network)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세계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네스코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비해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의 '후원'을 받는 프로그램으로서 그 지위가 덜 평가돼 오다가 2015년 11월에야 유네스코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격상됐다. 이는 세계유산 수준으로 위상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지질공원은 보존, 교육, 관광 세 가지를 추구함으로써 그 목표가 달성된다. 세계지질공원은 전 세계 시민들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유네스코의 정식 프로그램으로 해당 지역은 물론 국가까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기대를 모은다. 세계지질공원이 21세기 자연보전과 이용을 조화시킨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 입증하듯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에는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인증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나라에서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앞서 자국내 국가지질공원 인증시스템을 먼저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지질공원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자연공원 제도의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지질공원이 처음으로 인증된 것은 2012년의 일이다. 이 때 제주는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의 지위를 얻었다. 이보다 앞서 2010년 제주는 섬 전체(대표명소 9개소)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전국체전 메달을 뒤늦게 받은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한라산 영실


수월봉 지질트레일

세계지질공원 현황

세계지질공원은 2004년 첫 도입 이래 2020년 현재 44개국에 161개소가 인증돼 있다. 중국이 41곳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스페인 15곳, 일본과 이탈리아 각각 9곳, 프랑스 7곳, 독일과 그리스 각각 5곳이 있다. 중국과 일본, 한국을 빼면 유럽에 주로 집중돼 있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일찍이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을 유럽과 함께 선도해 왔기 때문이다. 세계지질공원이 도입되기 이전에 유럽지질공원이 활성화돼 있었다. 중국과 일본은 일찍이 자국내에서 국가지질공원을 인증하고 있다.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운영 관리

제주도 지질공원 운영과 관리의 기본 원칙은 '지속가능한 지질관광(geotourism)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있다. 과거 제주도는 주로 경관을 보는 관광형태에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010년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이후 지질 및 다양한 자연, 문화자원을 활용한 교육과 체험관광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지질명소에 탐방여건을 정비하며 탐방객의 수준별 안내 자료를 제작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들 활동은 크게 지질공원의 보전과 탐방인프라 사업, 지질공원 교육과 홍보 및 국제교류사업, 트레일 개발 등 지역주민의 참여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들이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다양한 지질관광과 교육 프로그램, 특산물 개발 등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같은 지역경제 효과 및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교육하고 해설사로 활동하게 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질명소를 지키고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월봉 세계지질공원 트레일

제주시 서쪽 끝 한경면 고산리 '바람의 언덕' 수월봉. 세계지질공원 트레일이 바로 이곳 수월봉에서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첫 선을 보였다. 세계지질공원 인증 1주년을 맞아 2011년 10월의 일이다. 이어 안덕면 사계 산방산 용머리, 구좌읍 김녕·월정일대에서도 지질트레일 행사가 이어졌다.

수월봉 트레일은 제주에 명품 지질관광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탐방객들은 화산재가 켜켜이 쌓인 수월봉 해안절벽과 이웃해 있는 차귀도를 탐방하며 절경을 만끽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수월봉에 주목한 것은 '화산학의 교과서'로 평가되는 지질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주변에 해양생태 자원과 제주의 선사문화 및 전설 등 각종 제주의 역사·문화가 응축된 곳이기 때문이다. 세계지질공원을 활용한 수월봉 국제트레일은 고산을 중심으로 한 제주 서부권 생태역사문화 관광 발전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도 높았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해줄 임팩트로써 세계지질공원과 수월봉의 가치와 가능성을 내다본 것이다. 제주바투리

제주학, 나누고 즐기고 소통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는 2020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제4회 제주학대회를 개최했다.이 대회는 '근대성과 제주정체성'을 주제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제주다움이란 무엇인지 돌아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대회 기간을 '제주학 주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그동안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학술대회를 비롯하여 제주학 아카이브展·명사 초청 강연·탐방·책 나눔 행사 등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문성과 대중성을 확보하였다. 코로나19의 창궐로 대규모 행사를 준비할 수는 없었지만,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또한 인원 제약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이 함께 제주학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유튜브(@제주학연구센터)와 페이스북(@제주바투리)을 통해 주요 프로그램을 중계했다. **편집자 주**



제4회 제주학대회 및 제주학 아카이브展 개막식

10월 12일, 가인갤러리

10월 12일은 제4회 제주학대회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이와 동시에 제주학 아카이브展이 시작됐다. 제주학 아카이브展은 제주학연구센터가 처음 시도한 행사다. 아카이브展의 주제는 '기억의 재생, 지금 이 자리에'. 제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여러 기억들을 제주학 아카이브를 통해 보여주고자 마련된 전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제주시 아라동 가인갤러리에 마련되었다. 오후 2시, 아카이브展이 열린 바로 그곳에서 제4회 제주학대회 개막식이 열렸다.

개막식에는 제4회 제주학대회 개최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안창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과 오영희 부위원장, 박원철 의원, 박호영 의원, 강성민 의원 , 정광중 제주학회 회장, 손명철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함께했다. 개막식은 인사말, 격려사, 축사, 제4회 제주학대회와 아카이브展을 소개하는 순서로 이어졌으며, 제주무용예술원 예닮(대표 고춘식)의 특별공연 '이어도의 숨비소리'가 펼쳐져 호응을 받았다.



이현정 박사와 함께하는 산육(産育) 신앙 탐방

10월 13일, 제주시 동부 지역 신당

제주학대회 이튿날인 10월 13일에는 제주의 정체성이 녹아있는 제주의 신당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 신화 연구가 이현정 박사(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안내로 출산과 양육을 돌보는 신들을 모신 제주 동부 지역 신당들을 방문했다. 제주의 기자(祈子) • 산육 신앙은 삼승할망(생불할망, 불도할망)과 서천꽃밭, 혹은 돼지고기 금기를 어겨 부신(夫神)과 별거한 일뤳당신들의 내력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일뤳당신은 아이가 열다섯 살이 될 때까지 보살펴주는 여신으로서, 피부병, 안질, 복통, 경증, 경제 등에 효험이 있는 치병신으로 모셔진다. 하지만 실제로 제주의 기자 • 산육 신앙은 일반신 신앙, 당신앙, 조상신 신앙뿐 아니라 돌 신앙, 미륵 신앙, 기타 민속 신앙들이 얽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날 탐방한 신당은 제주시 월평동에 있는 다락쿳당, 이도2동 우여천물할망당, 하도리 각시당과 삼신당, 김녕리 서문하르방당, 함덕리 한양할망당과 고씨할말일뤳당 등이다. 이현정 박사의 설명으로 각 신당에 얽혀있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기자·산육 신앙에 얽힌 제주인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김태일 교수와 함께하는 '골목길의 삶과 풍경'

10월 14일, 제주시 원도심 일대

제주학대회 셋째날인 10월 14일에는 오늘날 제주의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는 제주시 원도심 탐방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제주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가 진행된 원도심. 그 속에서 근대성과 어우러진 제주 정체성을 발견한다. 원도심 골목, 그곳은 근대화 물결의 한가운데를 지나야 했던 서민들의 삶의 공간이었다. 그러기에 그 공간은 전통과 근대화가 뒤엉킨 제주인의 오늘을 보여준다. 제주 원도심을 연구해온 김태일 교수(제주대학교 건축학과)가 탐방 안내를 맡았다. 탐방은 제주 원도심의 중심인 관덕정에서 시작하여 원도심 곳곳에 남아있는 칠성대를 찾아나서는 길이었다. 칠성대는 해양문화가 발달했던 탐라국의 흔적인데, 항해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던 북두칠성을 본 따 원도심 곳곳에 설치한 제단을 말한다. 도시 개발로 그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칠성통이라는 지명이 말해주듯 원도심 곳곳에 칠성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칠성대를 거쳐 제주 읍성을 함께 돌아볼 수 있었다. 원도심 곳곳에 숨겨져 있던 제주의 역사 그리고 제주 정체성의 현재와 미래를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명사초청 강연 강영봉 교수의 "제주어를 부탁해!"

10월 16일, 가인갤러리

제주학대회 마지막 날인 10월 16일에는 명사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장소는 제주학 아카이브展이 열리고 있던 가인갤러리였다.

이번 강연은 제주어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강영봉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제주어를 부탁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말대로, 제주어는 제주인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집이다. 그런 제주어가 사라져가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제주어 연구에 일생을 바쳐 온 학자인 강영봉 교수를 모시고 제주어가 처한 현실과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강영봉 교수는 이번 초청 강연을 통해 제주어 연구에 입문하게 된 계기, 연구 과정에서 겪었던 에피소드, 제주어 실태와 보존을 위한 노력, 앞으로 과제 등 제주어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계에서 가장 언어 정책이 잘 된 나라인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어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서, "제주사람은 제주어로 말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더불어 후학들이 제주어를 아끼고 사랑하길 간곡히 당부하였다.

제4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

‘근대성과 제주 정체성’

10월 15일, 호텔 난타



제4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 ‘근대성과 제주정체성’ 참석자들

제주학대회 넷째 날인 10월 15일에는 제주학대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제주학대회 주제와 같은 ‘근대성과 제주 정체성’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크게 2부로 구성되었다.

1부의 주제는 ‘집합기억과 제주 정체성’이었다. 제주 정체성의 토대로 인식되는 분야를 다루었는데, 주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제주 정체성을 검토하는 시간이었다. 이를 위해 제주의 역사와 사상사, 문학 속에 나타난 제주의 정체성을 논의하였다. 1부는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장인 손명철 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발표는 전영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장이 맡았다. ‘탐라 천 년, 제주 천 년의 역사에서’라는 주제로 발표한 전영준 원장은 탐라 천 년과 제주 천 년의 역사는 고려를 전후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독립성을 지녔던 탐라국이 고려에 편입되고 조선왕조를 거치면서 중앙정부의 경계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인들이 끊임없이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혹독한 상황을 이겨내려는 불굴의 극복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 정체성의 정립은 고대로부터 이어온 제주라는 공간에 놓인 시간의 역사를 돌아봐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손명철 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교수


전영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장


김치완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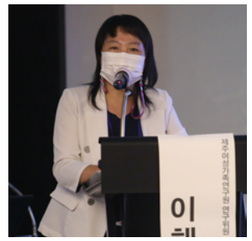
두 번째 발표는 김치완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맡았다. 김치완 교수는 ‘제주 정체성과 근대성에 대한 철학의 문제들’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제주의 정체성은 탐라 천년과 제주 천년 그리고 현실이라는 시대 구분 속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잃어버린 탐라 천년의 기억은 독자성에 초점이 맞춰져 재구성되고 있으며, 제주 천년의 기억은 변방이라는 타자 혹은 경계인의 기억을 통해 구성되어왔다. 그리고 현실은 ‘모던’ 즉, 근대화를 둘러싼 욕망의 실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차원의 기억과 욕망들이 지금도 동시적으로 포개지면서 제주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부의 마지막 발표는 김수열 시인이 맡았다. 김수열 시인은 ‘시대가 기억해야 할 제주의 작가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는 시인 문충성의 “그《제주 바다》의 생명력”, 소설가 김석범의 “아직도 꺼지지 않는《화산도》”, 소설가 현기영의 “역사가 된 소설《순이삼촌》”, 시인 김시종의 “경계를 아우르는《경계의 시》” 등을 열거하며, 발표자 자신에게 제주다움을 일깨워준 작가들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제주 혹은 제주문학의 오늘을 있게 한 작가들은 더욱 많다. 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가는 제주의 자연환경에 대해 그 안타까움과 울분을 글에 담고 있으며, 소멸해가는 제주어를 내려놓지 않고 자신의 작품에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수열 시인


강경희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연구원


장훈교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이해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이어서 1부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는 홍기표 전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와 김진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 홍기돈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이 참여했다.

2부의 주제는 ‘사회변동과 제주 정체성’이었다. 1부에서 전통적인 제주 정체성을 돌아보았다면 2부에서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제주의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는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인 강경희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2부 첫 발표는 장훈교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가 맡아주었다. 장훈교 교수는 ‘제주개발체제와 지역 정체성의 정치 그리고 대항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가 볼 때, 지역 정체성은 제주개발체제가 개발을 용이하게 이끌기 위해 만들어낸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제주개발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항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발표는 이해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이해응 연구위원은 ‘이주·다문화와 제주(지역)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그는 지역사회가 이주민을 외부인이 아닌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주민 역시 스스로를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부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은 서영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염미경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이 참여했다.

지정 토론을 끝으로 학술대회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서부터 개발과 이주까지 제주의 정체성과 관련된 쟁점을 폭넓게 검토하고, 후속 논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주바투리

제주학 아카이브展

‘기억의 재생, 지금 이 자리에’

10월 12일~21일, 가인갤러리

‘기억의 재생, 지금 이 자리에’라는 주제로 열린 제주학 아카이브展은 제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여러 기억들을 수집하는 제주학연구센터의 여러 사업들을 전시한 프로그램이다. 당초 제주학 주간으로 선포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전시를 할 예정이었으나, 관람객들의 호응이 이어지며 10월 21일까지 전시를 연장했다.

전시 내용은 제주학연구센터의 사업 분야에 맞춰 구성되었다.

제주어 분야에서는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구술로 채록해온 여정을 담은 자료집과 그 구술 주인공들의 얼굴이 담긴 사진 그리고 영상을 전시했다. 또한 제주어종합상담실 사업 소개, 지금까지 발간된 제주어사전을 전시하고, 동네에서 쓰는 독특한 제주어를 엽서에 적어 제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제주 역사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제주역사편찬사업과 제주학연구센터가 조사한 호적중초에 대한 소개의 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호적중초는 제주 기록문화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수가 보존되어 있다. 그 내용 또한 독특한데, 예를 들어 표류한 사람에 대한 기록, 여자 호주에 대한 기록 등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 제주 지역 호적중초에 담겨있다.

제주 민속 분야에서는 제주의 세시풍속과 무속을 다루었다. 계절에 따라 있었던 세시풍속(신구간, 입춘굿, 신과세제, 포제, 영등굿, 물맞이, 마불림제, 시만국대제) 관련 사진과 심방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된 관련 연구 성과들을 전시하였다. 또한 심방이 굿을 하는 영상을 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했다.

제주 해녀문화 분야에서는 제주지역에 산재한 해녀 공동체를 소개하고, 해녀문화 관련 연구 성과들을 전시했다. 또한 해녀들이 직접 부른 노래를 청취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다.제주바투리











제주학 책 나눔행사

10월 12일~21일, 가인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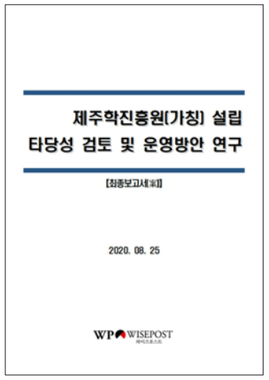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주간 동안 책 나눔 행사를 열었다. 그동안 제주학연구센터가 발간해온 각종 보고서와 총서, 책자들을 도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였다. 장소는 제주학 아카이브展이 열린 가인갤러리 마당이었다. 책 나눔 행사는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제주학주간을 넘긴 10월 21일까지 행사를 연장 운영했다. 제주바투리





제주미래 가치를 높이는 제주학 거점 공공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한다

편집부



제주특별자치도청은 2011년 8월 12일 제주연구원 산하에 제주학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설립 1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제주학연구센터는 (가칭)제주학진흥원(이하 제주학진흥원)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4월 '제주학진흥원(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이하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제주학진흥원 설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학진흥원 설립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타당성 용역'이 분석한 제주학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운영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립 배경 및 필요성

제주학 연구는 1967년 제주대학교 제주문제연구소(1981년 탐라문화연구소 개칭)가 설립되면서 일찌감치 시작되었다. 한편 한국의 지역학 연구는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더불어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확산되었다. 여기에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에 의해 지역문화 정책이 수립·추진되었고, 지역학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탐라역사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주학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다. 오늘날 제주학은 제주다움 즉, 제주 정체성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제주의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학문으로서 그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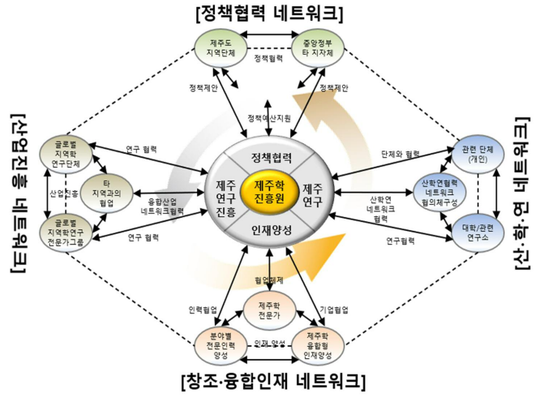
한편 국회에서는 2020년 6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탐라역사문화권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정비하여, 탐라역사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했다. 뿐만 아니라 자연분야 유네스코 3관왕을 차지하고, 독특한 문화자원과 소멸위기 언어 제주어를 보유한 제주도와 도민들에게는 소중한 유산들을 보전·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제주의 역사·문화 자원을 콘텐츠화하는 작업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아젠다에 발맞추기 위한 특화 전략이 될 수 있다. 제주학진흥원은 이러한 필요성을 갖고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효율적 운영 대안

제주학진흥원의 전신이 될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11년 8월 12일 설립한 제주학 공공 연구기관이다. 그러나 1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상 유지에 급급한 운영이 이어지면서, 설립 당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산 집행, 조직·인력 운영, 제주연구원과의 행정체계 이원화로 센터 운영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모든 인력이 1년 단위 계약직 신분으로 채용되어 안정된 연구 분위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예산과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양질의 연구사업과 아카이브 자료의 안전한 보관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제주학진흥원의 설립은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다. 독립적인 연구사업 및 행정지원 체계 수립으로 운영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연구 인력의 정규직화를 통해 양질의 연구 사업을 기획·수행하고, 소중한 제주학 자료들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제주도 출연 독립법인으로서 대외적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제주연구원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 관련 제도개선 등 정책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하고, 제주학진흥원은 제주학에 관한 연구와 연구지원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두 기관 간 중복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역할과 주요 기능

제주학진흥원은 제주학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그리고 제주학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유관 단체 간, 제주학 연구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다. 제주학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확산 그리고 연구 성과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새로 설립될 제주학진흥원이 수행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탐라역사 정립사업 △연구 정책 기획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및 진흥 △제주역사 편찬사업 △제주어 조사·연구사업 △제주학 및 탐라역사문화 교육사업 △연구지원사업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지원 △해양문화 자원 발굴·보전사업 △제주문화유산 발굴 및 한류 콘텐츠 발굴 연계 지원 등이다.

설립 대안 및 설립 형태

제주학진흥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액 출연하는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이 조직은 '민법' 제32조에 의거한 비영리 재단법인이 될 것이다. 2021년 하반기 설립이 목표다.

조직 및 인력 구성

제주학진흥원은 연구기획실과 행정실, 1개 센터로 구성된다. 연구기획실은 연구기획소통부, 역사민속유산부, 제주어부, 제주학진흥부 등 4개의 부로 나뉘고, 제주학자료센터와 행정실은 따로 분리되는 형태이다. 이를 위해 원장직을 포함하여 총 23명의 인력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중점 전략

제주학진흥원은 제주학 진흥 생태계 조성, 거점 공공 진흥기관 역할, 글로벌 및 세계 지역 간 산학연관 네트워크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제주바투리

제주학진흥원 설립을 위한 추진 일정(안)

단계	세부 추진내용	일정
설립방침 결정단계	• 설립요건 검토 및 형태 결정 • 설립 검토안 마련 • 설립 추진 기본 방침 결정	2019.
	• 타당성 검토 전 1차 협의	2019.1.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심의 단계	• 설립타당성 검토 보고서 작성	2020.1.
	• 설립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2020.
	•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2021.
	• 조례제정(안) 마련	2021.
설립 협의 단계	• 행안부 협의	2021.
조례.정관 제정 단계	• 협의 결과 공개(주민 의견. 운영심의위 심의 결과 등) • 지자체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의회 심의 등 조례 제정, 공포	2021.
설립 단계	• 임원 공모 및 임명 • 정관 및 제규정 제정 •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출연기관) • 설립 등기 • 지정, 고시 신청	2021.

(사)제주학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정광중 ((사)제주학회 회장, 제주대학교 초등사회과교육전공 교수)

제주학은 제주의 인문・사회・자연의 근원을 탐구하는 융합 학문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학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기관・단체들과 학술 협업을 통하여 풍요로운 제주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기관지 〈제주바투리〉에서는 제주학 기관・단체들의 연구 활동을 소개하는 열린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소통 주자는 제주학 연구의 선구 역할을 해온 (사)제주학회입니다. [편집자 주]

1. (사)제주학회의 과거와 현재

1) 제주도연구회의 창립과 활동

(사)제주학회의 전신인 제주도연구회(濟州島硏究會)는 1978년 2월 6명(김영돈, 장주근, 전경수, 정영화, 진성기, 현길언)의 발기인이 결의하면서 활동이 시작되었다. 창립총회 겸 제1회 월례 발표회는 1978년 3월 28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렸으며, 초대(1978. 3. 28~1980. 4. 3) 및 2대(1980. 4. 3~1982. 4. 23) 회장은 당시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장주근(2016년 6월 타계) 교수가 맡아 역할을 수행하였다.

제주도연구회의 창립 배경과 취지를 살펴보면, 제주도(濟州島)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비롯한 역사와 문화, 제주도민의 생활양식, 사회구조 및 의식구조 그리고 제주어의 언어적 구조와 특성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위하여 관련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이 상호 협력함과 동시에 제주학(濟州學)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제주도연구회의 창립 배경과 취지는 1996년 사단법인 제주학회로 변신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맥이 이어졌음은 거론할 여지가 없다.

1978~1985년에 이르는 약 8년 동안 제주도연구회는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로 서울 소재의 경기대, 서울대, 이화여대 및 한국민속박물관 등의 장소에서 연 2~5회 정도의 발표회를 치르면서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는 공식적인 학술지의 간행은 보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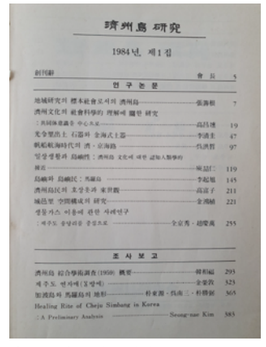
제주도연구회가 공식적인 학술지인 『濟州島硏究』를 발행한 것은 1984년 12월의 일이다. 창간호에는 9편의 논문을 비롯한 연구노트 5편과 조사보고 4편 등이 실렸는데(자료 1), 이처럼 창간호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고 알찬 논문과 조사보고가 게재됨으로써, 『제주도연구』가 제주도를 연구하는 대표 학술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에 충분했다. 더불어 『제주도연구』의 발간에는 현오학술문화재단(玄悟學術文化財團: 초대 이사장 양치종)이 발간비 전액을 지원하였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현오학술문화재단의 발간비 지원 사업이 1984년 제1집 발행에서부터 2017년 제48집 발행까지 33년간 이어짐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제주학회의 존속과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1985년 11월 시점에서는 제주신문사와 공동주최로 제1차 전국 학술대회 및 제주신문 창간 40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호텔 제주 로얄)함으로써 전국의 연구자들이 '제주도의 보전과 개발'이란 대주제를 전제로 수준 높은 발표와 토론을 전개하였다. 1985년을 전후한 시기에 제주도연구회 회원 수는 약 90명 안팎에 이르고 있었다.

2) 사단법인 제주학회로의 변화와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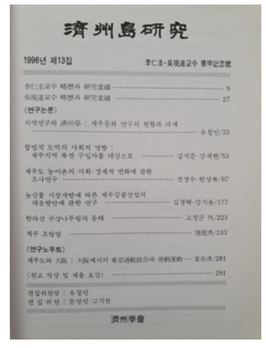
제주도연구회는 1996년 12월에 약 20년 역사를 뒤로 하고, '제주학회(濟州學會)'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자료 2) 이것은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제주도와 제주학 관련 연구자들의 전국적인 증가를 배경으로 연구자들의 요구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시대의 흐름이 '연구회'보다는





자료 1: 제주도연구회 창간호 『濟州島硏究』(1984년) 표지와 게재 논문





자료 2: (사)제주학회가 처음으로 발행한 『濟州島硏究』(제13집, 1996년) 표지와 게재 논문

공식 '학회'로서 활동하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1997년 11월에는 제주학회를 사단법인으로 제주도교육청에 등록하면서 도내의 여러 학회 중에서는 가장 발 빠르게 법인체로 변신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성장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당시 제주학회 회원 수는 대략 140여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제주학회로 승격된 시점(1996년)의 『제주도연구』(제13집)에는 '이인규·오현도 교수의 화갑 기념호'로 꾸미면서 총 7편의 논문을 구성하여 발행되었다(자료 2).

2000년 이후부터 (사)제주학회 학술지인 『제주도연구』는 연 1회 발행에서 2회 발행으로 증간하였다. 더불어 1호 당 게재 논문은 2020년까지 평균 7~8편을 수록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06~2009년(제29~32집)까지는 제주학회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다가 다른 학술지와 같이 시대에 걸맞은 학술지의 지위 향상을 추구하지 못한 배경이 더해져서 『제주도연구』가 연 1회 발행에 그쳤다는 사실이다.

제주학회에서는 2002년부터 제주학 연구를 위해 헌신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학술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기 시작하였는데, 제1회 수상자는 남도영 동국대 명예교수였다. 이어서 2003년 제2회 학술상은 고 이기욱 제주대 교수, 2005년 제3회 학술상은 강정희 한남대 교수, 2006년 제4회 학술상은 김병택 제주대 교수로 이어졌다. 2012년에 이르러 '제주학 학술상'은 '(사)제주학회 학술상'으로 확대 개편되어 '저서상'과 '논문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하게 되었으며, 제1회 제주학회 학술상의 저서상은 고유봉 제주대 명예교수, 논문상은 안미정 한국해양대 연구교수가 수상하였다.

2. (사)제주학회의 위상 정립

2010년대로 접어든 이후에 (사)제주학회는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국학회로 성장함은 물론, 다양한 학문분야를 배경삼아 제주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에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사)제주학회는 2011년 제주학연구센터와 연구협력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에는 중국의 운남대학(雲南大學)과도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편승한 폭넓은 연구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사)제주학회의 단계적인 성장은 지역사회로부터도 인정받게 되었는데, 2012년에 재암문화재단(이사장 송봉규)으로부터 제주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대안 제시를 인정받아 '재암문화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2013년 후반기에 이르러 『제주도연구』는 제40집이 발간되었고, 2016~2017년에는 2년 연속으로 제주해녀문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사)제주학회의 입장에서 볼 때, 최근에 발생한 가장 중요한 일은 2018년 '재단법인 오리온'과의 연구지원





좌측 제50차 (사)제주학회 전국 학술대회 기념사진(2019년 11월)
우측 상 재단법인 오리온과의 협약식(2018년 9월)

협약 체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지원 협약을 바탕으로 (사)제주학회는 재단법인 오리온으로부터 10년간 5억 원(매년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2017년 이후 현오학술문화재단으로부터 끊겼던 학술지의 발간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정기 학술대회 개최와 더불어 다양한 연구 및 교류사업도 가능해지게 되었다. (사)제주학회의 입장에서는 학회 탄생 40년 역사상 가장 확실한 지원군을 얻은 셈이다.

재단법인 오리온의 연구지원 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제주학회는 학회의 위상 정립과 함께 학술지인 『제주도연구』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작업에도 매진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2019년 『제주도연구』가 한국연구재단이 관리·지원하는 '등재 후보지'로 격상되는 행운을 맞게 되었다. 이로써 (사)제주학회의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위한 탄탄대로가 마련된 것이다.

3. (사)제주학회의 미래

2020년 11월 현재 (사)제주학회의 개인 회원 수는 300여 명에 이른다. 이 회원 수는 제주도라는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학을 연구하는 학회규모로 볼 때 결코 적은 수라 할 수 없다. 그리고 한 때 다소의 굴곡은 있었지만, 2020년 8월까지 『제주도연구』는 제54집까지 발간하였다. 나아가 (사)제주학회는 전국 학술발표대회 51회 그리고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10회 개최하면서 42년째 달려왔다. 그러나 이에 만족할 수는 없다. 앞으로 (사)제주학회는 반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탄생 50주년과 100주년을 향해 전진해 가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제주학회가 안고 있는 몇 가지 중대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첫째는 (사)제주학회의 사무실을 마련하는 일이다. 아직까지도 (사)제주학회는 학회 전용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한 채 타 연구소에서 더부살이 중이다. (사)제주학회의 발전은 물론이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학회 전용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로 현재 '등재 후보지'로 인증된 『제주도연구』를 '등재지'로 한 단계 더 격상시키는 일이다. 이 점은 (사)제주학회의 지위와 위상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일인 동시에, 『제주도연구』에 수준 높은 논문을 끌어들이는 유인책이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완수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다.

세 번째로는 (사)제주학회에 30~40대 젊은 층 연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일이다. 솔직하게 말하건대, (사)제주학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노령화된(?) 학회로 전락하고 있다. (사)제주학회의 비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앞으로 30~40대 연구자들이 (사)제주학회의 중심 멤버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는 일련의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바투리

'시민참여형'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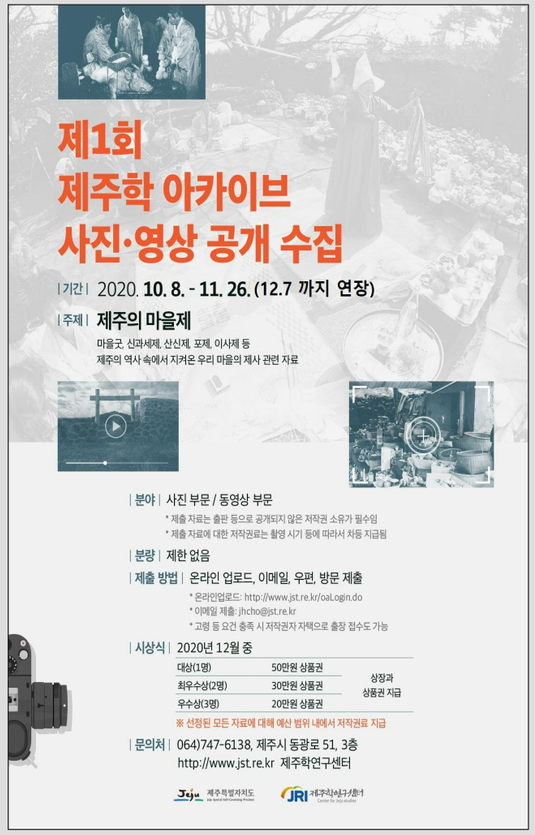
조정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현재 제주학 아카이브는 5만여 건의 제주학 관련 콘텐츠를 구축하면서 명실상부한 제주학의 '지식창고'이자 '영상 플랫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비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 면으로는 여전히 구시대적 관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한계점도 가지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다.

클라우드 서버로 전환 및 검색 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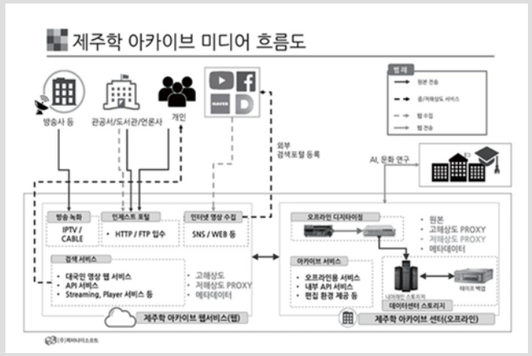
2020년 수행한 〈제주학 아카이브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서도 밝혔듯이 제주의 정체성을 오롯이 담아내는 동시에 한국 및 세계적 보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류체계와 메타데이터 설정, 저작권 설정 등의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또한 쉽고 간결한 검색 시스템과 원활한 내려받기 등 이용자 환경 개선도 필수적인 숙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우선 불안정한 서버를 2021년부터 웹서버로 전환하고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연동될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영상 공개 수집 등을 통한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실상 지역학 아카이브의 성패는 정보지식을 전달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학 지식을 함께 생산하고 공유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지난 10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제1회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수집〉 사업을 수행하였다.





마을공동체의 신과세제, 포제, 이사제, 영등굿, 마불림제, 시만국대제, 당제 등 '제주의 마을제'를 주제로 한 이번 공모에 총 4,500여 점의 사진과 30여 편의 동영상이 응모되었다.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대상 등 6명에게 상장과 부상(상품권)을 시상하였고, 선정된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료로 총 3,000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2020년 제1회 사진영상 공개수집 사업에서 집적한 '제주의 마을제' 자료는 추가자료 입수와 현지조사로 보완하여 제주학 아카이브 핵심콘텐츠로 구축할 예정이며, 2021년 10월 제주학대회에 맞춰서 특별전시회와 자료집(단행본) 발간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제2회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수집 사업의 주제로 '제주의 관혼상제례'를 설정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및 쌍방향 모든 아카이브 활성화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2021년부터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더욱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과정의 개설이다. 시민들이 아키비스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러한 교육에 기반해서 직접 자신이 사랑하는 고향의 지식정보와 제주인의 삶의 자료를 콘텐츠로 만들어 아카이브에 업로드 하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오픈 아카이브 제도를 정착시켜서 누구든지 아카이브에 콘텐츠를 올리고 수정할 수 있는 쌍방향 시스템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시민참여형' 아카이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주도형' 아카이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학 아카이브는 기본적으로 제주도라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바투리(바탕)로 두고 있다. 제주인의 삶 그 자체이자, 공동체의 역사에 대한 기록으로서 제주학 아카이브는 제주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동시에 만들어가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자, 작가 등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시민의 공감과 참여 속에서 만들어가는 제주학 아카이브는 제주인의 삶을 대변하고 윤택하게 하는 더욱 소중한 바투리가 될 것이다. 제주바투리

제주어 구술 조사와 인공지능(AI)

김미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2020년 제주어 분야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인공지능(AI)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이스트소프트가 제주권역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제주어 화자의 대화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이 추진되기 전부터 공동 사업 참여를 원하는 전화가 여러 통 걸려왔다.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는 여러 업체의 방문이 이어졌다.

최첨단 인공지능과 구술 자료!

가장 반대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가장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둘의 관계는 생각하는 것보다 불가분의 관계였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바둑 관련 자료가 있어야 가능했던 것처럼 제주어를 이해하고 말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원시적인 제주어 구술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 역사의 주체와 서술 대상에 대한 재탐색이 이루어지고 구술사의 가치가 재검토되었다. 입에서 입을 통해 말로 전해져 내려온 종교적 주술, 설화, 구비문학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과거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을 말로 표현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기억된 경험', '문헌 기록을 남길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이제까지 이용되지 않았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구술을 기록하는 것이다.

제주어 구술조사의 본격적인 진행

논문 집필을 위한 자료 조사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제주어를 조사한 사례들은 있지만 본격적인 제주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국립국어원에서 2004년부터 추진된 '권역별 지역어 조사' 사업부터다. 전국의 지역어 자료 수집하기 위한 10개년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민족생활어 조사 사업도 추진되었는데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 고유 문화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제주어 조사 사

업을 벌인 것은 2014년부터이다.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 의뢰하여 시행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제주 지역의 12개 읍면에서 한 개 마을씩 3년 동안 36개 마을에 대한 제주어 구술 채록 작업을 진행하고 전사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는 조사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의례, 민간요법 등에 대해 정해진 질문지를 기반으로 최소 10시간 이상의 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 담화 상황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도록 담화표지도 가급적 그대로 쓰고 있다. 또한 책 뒤쪽에는 동일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한 어휘 조사 자료도 첨부되어 있다. 이 자료는 하나의 단어에 해당 지역 자료로는 최초로 발음을 담고 있어 어


제주어와 전통문화 관련 목축문화 조사 장면(2020.8)

개발을 위해 제주어 구술자료집 20권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주어 번역기가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논문을 발표하였고 제주어를 전산학적으로 접근한 최초의 연구 성과로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구좌읍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 빌리지 사업체 쪽에서 어르신들의 감성분석을 인공지능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주어 구술 자료에 대해 자문을 의뢰한 바도 있다.

제주어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앞서 발간된 제주어 구술 보고서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표준어로 대역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진행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간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중요 자료를 선정하고 주석 작업도 병행하였다.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했으며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작은따옴표(‘ ’) 안에 쓰고 주석으로 그 내용을 밝혔

2019년까지 28개 자료집을 발간하였고 2020년 12월 8권을 추가하여 36권을 완간하였다. 이 자료집에는 36개 지역에서 만난 100여 명의 어르신의 삶과 언어가 제주어와 표준어로 함께 제시되어 있다.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아카이브에 이 자료집을 PDF 파일로 탑재하였고, 제주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추진하여 2024년 편찬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어대사전 용례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제주어 구술자료집은 몇 년 전부터 이미 인공지능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다. 2019년 (주)다음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연구소인 ‘카카오브레인’에서 제주어 번역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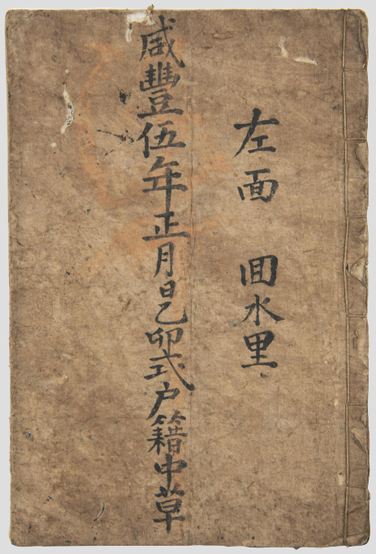
사라지는 제주어, 위기의 제주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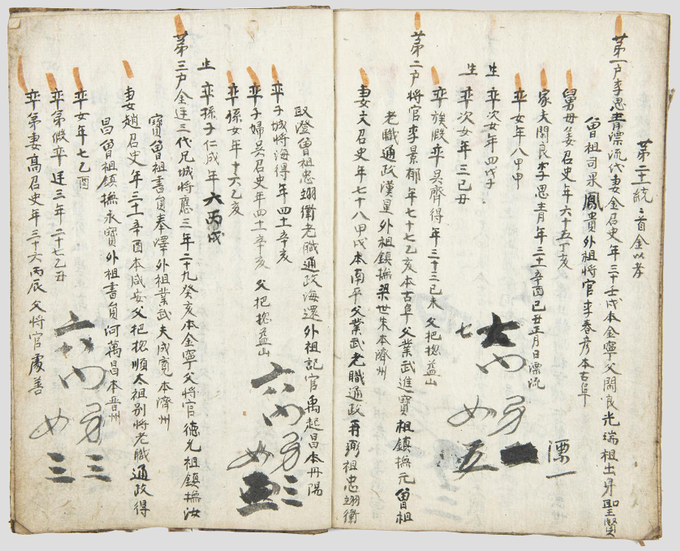
이러한 제주어 구술채록 사업이 2020년으로 끝이 나고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제주어 구술 조사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개인적인 조사를 하긴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조사 사업을 하는 것은 힘들다.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고 다른 화려한 사업에 밀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발간된 자료의 활용 상황을 본다면 제주어 구술 자료 활용은 앞으로 무궁무진해 보인다.

‘한 사람의 노인이 사망할 때마다 하나의 박물관과 하나의 도서관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다. 제주의 과거를 기억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 10년 전의 70대가 지금 80대가 되었고 10년 후는 지금의 60대가 70대가 된다.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앞으로 길어야 10년 정도면 더 이상 의미 없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 살아있는 박물관과 도서관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사라지기 전에 제주어 구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내일이면 늦을지도 모른다. 제주바투리

기록의 재발견, 제주 호적중초(戶籍中草)

임승희(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역사에서 ‘기록’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왕도정치를 이상으로 삼았던 조선시대 정치문화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기록정치’이기 때문이다. 조선 왕조는 국가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다 철저하게 기록을 남겼다. 오늘날 전해져 오는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등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제주에도 세계기록유산 못지않게 중요한 기록이 발굴되어 학계에 알려진 바 있다. ‘호적중초(戶籍中草)’가 바로 그것이다. 조선 왕조는 조세(租稅)와 역(役)을 부과·수취하기 위해 호구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호구조사의 결과물이 바로 호적이다. 제주지역은 호적중초의 보고라 할 만큼 대정현(현 대정읍) 지역을 중심으로 호적중초 자료가 집중적으로 남아 있다.

호적중초란

‘戶籍中草’ 혹은 ‘戶籍重草’로 일컬으며, 관에서 관리하던 호적대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초초(初草) 다음의 중간 과정에서 다시 정리하여 작성된 기록이다. 대정현의 호적중초는 18세기 후반 ~ 20세기 초반에 걸쳐 3년마다 마을 단위로 호구상태를 파악한 장부로, 호적대장과 각 집안(戶)에서 보관하고 있던 호구단자를 이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대정현의 호적중초와 같이 마을 단위로 작성된 중초들은 각 집안에서 수합한 호구단자와 함께 해당 관청으로 모아졌다. 모아진 자료는 지난 식년의 호적대장과 일일이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하였으며, 해당 식년의 호적대장을 만드는 초본(草本)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호적중초는 호적대장을 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였다.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는 "중초(中草)란 초본(草本)이다. 이것이 대장(臺帳)에 비하여 좀 더 사실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여 호적중초를 설명하고 있다. 즉, 호적중초의 각 호(戶)에는 ① 거주하는 곳의 통·호수, ② 호주의 직역·성명·나이·본관·4조(四祖, 부·조·증조·외조부)의 직역 및 이름, ③ 호주 처(妻)의 성씨·나이·본관·4조의 직역 및 이름, ④ 동거 가족의 직역·이름·나이, ⑤ 노비와 고공, 차입자가 있을 경우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그 외에도 호적중초에는 일반적으로 기입되지 않은 3세 미만의 남녀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록도 면밀하게 기록하였다. 그 밖에 이래(移來)와 이거(移去), 분호(分戶), 도망자 혹은 표류한 자, 장애인 등에 대한 내용들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호적 자료는 제주 마을의 원형을 복원하고, 주민들의 정체성을 구명하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며, 제주의 사회상과 신분·가족 구조·인구 변동 등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특히 호적중초는 마을에서 직접 관리하고 보관했던 자료의 특성상 관에서 보관하던 호적대장보다는 조금 더 마을 실정에 가깝게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기록되었다. 다른 호적 자료에 비해 호적중초의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호적중초 조사 사업의 오늘

제주 호적중초의 학술적 가치를 알아 본 학계에서는 2000년대 전후한 시기에 호적자료 소장처 조사 및 영인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대부분 여러 연구팀에서 산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자료의 훼손과 연속성 있는 자료의 공유 및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로 마무리되었다. 소중한 우리 지역의 기록 유산이 한 순간의 부주의로 사라진다면, 결국 과거의 기록에 많은 것을 의지해야 하는 한 사회의 역사 또한 쉽게 잊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호적중초와 같은 지역의 중요한 기록물 자원을 지키고 후대에 안전하게 전승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주학연구센터는 2019년부터 '제주 호적중초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사업'을 실시하였다. 다행히도 각 마을에 소장되어 있는 호적중초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호적과 고문서 자료를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호적중초는 과거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기록물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과거의 기억을 미래로 연결하는 콘텐츠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이미 학술적인 면에서 제주 호적중초 자료에 대한 가치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으며 제주의 호적중초가 문화재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는 사실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호적중초의 문화재 지정 후 소실되는 호적중초 자료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자료의 보존 및 관리, 학술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역사학, 고문서학, 서지학, 국어학, 경제학, 사회학 및 인류학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며, 종합적으로 협동 연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제주 호적중초는 '제주'라는 섬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연 환경과 인류학적 인구 문화가 어우러져 만들어 낸 기록 유산이다. 비록 전근대사회에서 제도적으로 3년을 주기로 거듭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은 제주라는 지역에서 태어나 살다 간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자 기억이며, 제주라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공간 속에서 빚어낸 제도의 소산이다.

제주 호적중초는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자 제주의 과거를 재발견할 수 있는 제주의 소중한 기록 문화유산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제주바투리

해녀문화의 기록과 보전

고은솔(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만농 홍정표 사진

2019년 말 기준 제주도내의 현직 해녀 수는 총 3,820명이다. 2010년 4,995명이었던 해녀 수는 10년이 지나면서 1천명 가량 줄었다. 2016년까지만 해도 30세 미만 해녀가 전무하였으나, 2019년까지 6명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해녀의 고령화는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해녀 삼촌들이 오랜기간 전승해온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시급하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그동안 제주해녀문화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꾸준하게 연구・세미나 사업 등을 수행해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학술적 교류를 위한 해녀문화 국제학술대회와 포럼 개최, 해녀문화 관련 조사연구, 국가중요어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사업 등이 있다. 또한 그동안 해녀에 관한 의학, 해양학,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민속학 등 여러 분야에서의 연구 업적들을 아카이브 자료로 구축하여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다.

해녀문화의 가치

해녀 관련 문화재 지정 현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1호 '해녀노래(1971)',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10호 '제주해녀의 물옷과 물질도구(2008)',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제주해녀어업(2015)',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제주해녀문화(2016)',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해녀(2017)'가 있다. 국내유・무형문화재, 어업유산으로서 뿐만 아니라 제주해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유산 제도를 통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제주해녀 '공동체',



갯닦이(위미 2리 개설 바당)

'직업인으로서 여성의 지위', '자연과의 공생' 등은 제주 해녀들이 시대적 상황과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보전해 온 소중한 자산이다.

해녀가 제주에서 상징하는 바는 단순히 유산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역사적으로 반농반어가 필수적이었던 제주 해안 마을에서 해녀들은 어머니로서, 딸로서, 밭을 일구고 동시에 물질을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왔다. 따라서 해녀로서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제주의 자연과 역사, 제주민들의 삶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돕는다.

해녀문화 조사사업

이에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마을기록화사업의 일환으로 해녀문화 조사를 올해 처음 실시하였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2리를 대상으로 10차례 현장 답사와 마을, 어촌계, 해녀회 관계자들 및 주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마을의 발전과 변화상, 그리고 주민들의 생애를 기록으로 남겼다. 특히 어촌계와 해녀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인터뷰와 조사를 진행하였다. 해녀 공동체를 중심으로 바다를 정화하는 작업인 갯닦이, 우뭇가사리・성게・소라 채취 현장에 찾아가 작업 일수, 작업 방식, 수확량과 판로, 어장환경 등 해녀의 사계와 생활에 대한 여러 유의미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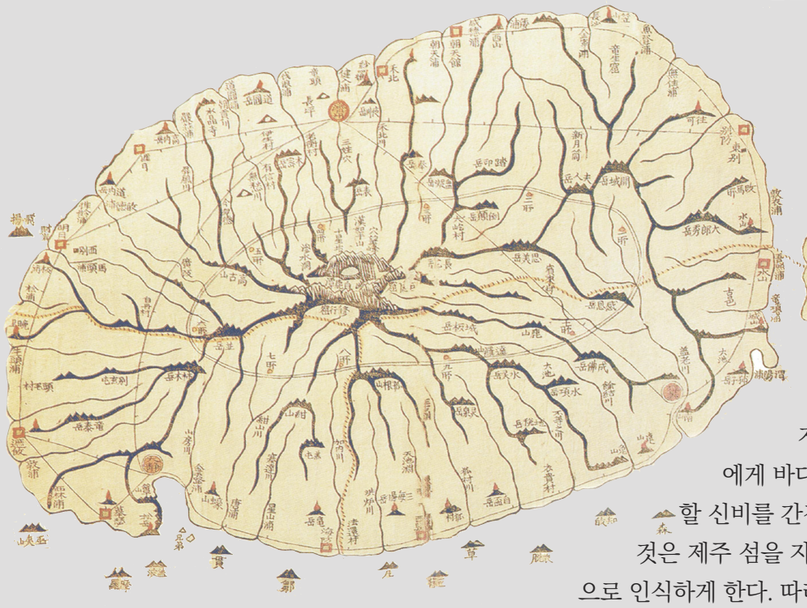
앞으로도 해녀문화의 주체인 해녀를 비롯하여 물질 공간인 바다와 해양생태계, 그리고 이들로부터 형성된 유・무형 유산의 변화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해녀의 여성 리더십 등 대내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해녀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 방법론 개발과 기초 연구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제주바투리



성게알 까기

제주가 동아시아 해양문화 교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면

김선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제주'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 여전히 '제주'는 '바다 건너 고을'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건재하다.

지금도 제주 섬은 육지 사람들에게 바다 건너에 있는, 그래서 알지 못할 신비를 간직한 환상의 섬이다. 그런데 그것은 제주 섬을 자신들과는 별개인 독특한 무엇으로 인식하게 한다. 따라서 제주는 육지에서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시험 삼아 해볼 수 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그것은 1960년대 이후 계속된 중앙정부의 제주지역 개발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제주 섬은 국가 경제 성장의 일부로서 관광지로 낙점됐다. 이후 수십 년간 수립된 제주지역 개발 정책은 이 기준에 따라 시행됐다. 그 결과 제주도는 신비를 간직한 관광지로 거듭났으며, 육지부에 대한 제주 섬의 의존도는 더욱 강화되어 갔다.

타자로부터 호명된 섬, 제주

제주(濟州). '바다 건너 고을'이라는 뜻이 담긴 이 지명은 본래 제주 섬을 가리키는 지명이 아니었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시대인 1211년(희종 7년)에 이르러서야 '탐라'라는 기존 지명이 폐기되고, '제주'라는 새로운 지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처럼 옛 제주 섬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고을을 '제주'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 기준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섬은 바다 건너 고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는 타자로부터 호명(呼名)된 제주 사람들의 처지를 보여주는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 섬이 '탐라'가 아닌 '제주'로 불리게 된 1211년은 탐라왕국이 고려왕조에 완전히 편입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고려는 1105년(숙종 10년)에 탐라국을 탐라군으로 격하시키고 중앙에서 관리를 보내 제주 섬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탐라'를 '제주'로 바꾼 것은 제주 섬이 한반도 정권에 완전히 복속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8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주 섬은

제주다움을 지키는 것

특별자치도 출범 후, 15년의 짧은 시간 동안 해외 자본이 대거 유입되고, 저가항공사가 난립하면서 육지 인구가 대거 입도했다. 이로 인해 급격한 사회변동이 제주 섬을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다. 약한 것은 들어오지 않는다. 힘을 가진 것들이 물밀 듯이 들어오기 마련이다. 어떤 면에서 제주 사람들의 삶은 편리해졌지만(물론 쓰레기, 주차문제와 같은 생활환경은 악화되었다), 그만큼 제주다움은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제주다움

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질문이 생긴다. 제주다움은 왜 지켜야 하는 것일까? 이것은 제주학의 필요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제주학은 제주다움 즉, 제주 정체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불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보통 두 가지로 귀결되어 왔다. 첫째는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더불어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강화되고 있기에, 지역 정체성을 확립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세방화(glocalization) 흐름에 따라 지역이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드러내는 독특한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두 대답은 일견 의미 있어 보이지만, 정치·경제적 상황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정치인이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 제주다움을 강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본가들이 돈벌이를 위해 제주다움을 상품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두 가지 사례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 다만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할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 역시 타자의 시선에서 제주섬을 '제주'라고 불렀던 지난 천 년의 시선과 다르지 않다. 그것이 지역분권이든, 돈이든 타자가 있어야 '제주'라는 존재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나다움을 지킨다는 것은 남이 나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부를 수 있는 호칭을 창조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제주다움을 지킨다는 것은 저 멀리 육지에 있는 힘 있는 타자가 '바다 건너 고을'이라고 호명해왔던 관행을 멈추게 하는 것이며, 제주 사람들이 스스로 호명한 자기 이름으로 타자와 교류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제주다움을 지키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북쪽을 향해 바라보던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돌려보는 데 있다. 태평양을 마주보는 제주섬은 예로부터 일본과 활발한 교류를 해왔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한다면 제주섬은 동아시아권 해양문화 교류를 주도하는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 특히 아마미제도[奄美諸島]와 오키나와제도[沖縄諸島], 타이완[臺灣]섬은 제주 섬이 주도하는 동아시아권 해양문화 교류의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는 섬들로서 문화적으로 유사한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중심부 권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변방으로 취급되어온 역사도 비슷하다. 따라서 제주 섬을 위시하여 여러 섬들 간 유사점을 공유하는 다양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권 해양문화 교류를 강화하여 육지와 상관없이 홀로 서는 순간, 제주 섬은 제주다움을 지키는 것을 넘어 새로운 자기 창조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의 정체성을 연구하고, 그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제주를 제주답게 만들기 위한 노력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 사람들이 스스로를 호명하고, 그것으로부터 타자와 교류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 사람이 스스로를 호명해왔던 과거의 기억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해왔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기관들과 교류해왔다. 이제 교류의 대상을 동아시아 섬들로 확장시킴으로써, 제주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타자와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것은 2019년경 일본 가고시마대학과 협력하여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지역을 연구한 것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마미오시마에 산재한 태평양전쟁 유적지 조사를 통해, 전쟁의 한복판에 있던 제주 섬의 과거를 돌아보고 그것이 오늘날 제주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제주다움이란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 섬이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섬들과 더 많은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국가 간 장벽이 모두 거둬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팬데믹을 통해 상호 교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절절히 깨닫고 있다. 앞으로 제주 섬이 동아시아 해양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우뚝 서, 제주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호명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고립된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을 잘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주학연구센터 역시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다. 제주바투리

2020년 주요 사업 성과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운영 사업

제1회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 수집

제주학연구센터는 10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제주의 마을제'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수집하였다. 마을굿, 신과세제, 포제, 이사제, 영등굿 등 '제주의 마을제'를 주제로 한 이번 공개 수집에는 제주도민, 민속학자, 사진작가, 영상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사진 4,500여 점, 동영상 30여 편을 출품했다.

출품 사진과 동영상에는 납읍리 등 7개 마을의 포제와 리사제, 송당리 등 21개 마을의 신과세제와 마불림제, 한림 등 8개 지역의 풍어제, 칠머리당 등 9개 마을의 영등굿, 추자 대서리의 걸궁 등 5개 마을의 당제 등 총 50여 개 마을 자료가 담겨 있었다. 이번 공모사업의 수상작으로는 대상 한진오, 최우수상 강만보·김기용, 우수상 김일영·양성혁·류진옥 씨를 선정하였다. 이번 공개 수집에서 선정된 사진과 동영상은 제주학 아카이브 콘텐츠로 구축하여 "제주의 마을제" 누리집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보완 조사와 추가 자료 확보를 통해 특별 전시회와 자료집 발간도 계획하고 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이번 공모를 계기로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칠머리당 영등굿 풍어제(1990.2.13, 강만보 사진)

제주학 아카이브 고도화 및 이용자 환경 개선

제주학연구센터는 2020년 상반기 '제주학 아카이브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제주학 아카이브는 5만여점에 이르는 자료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1) 제주문화에 최적화된 분류체계 미비, 2) 자체 제작 콘텐츠 비중의 낮음, 3) 개인정보 및 저작권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미적용, 4) 유사기관에 구축된 자료에 대한 네트워크 공유 미비, 5) 이용자 중심의 접근성 제고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향후 개선 방향으로는 1)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간, 장비, 예산 관련 인프라 구축, 2) 제주학 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3) 제주학에 최적화된 분류체계와 메타데이터 기준 마련 및 도내 기관과 공유, 4) 모든 센터 사업 결과물의 아카이브화를 통한 자체 생산 콘텐츠 확보, 5) 전문가와 일반인 대상의 이용자 세분화 및 서비스 구현, 6) 중장기적인 비전으로서 도민친화형 라키비움 설립 준비 등이 제시되었다.





제주학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한 《제주 신화, 본풀이를 만나다》 발간



제주도는 신화의 섬이다. 그만큼 제주 신화는 한국적 상상력의 원천 소스를 담아내고 있다. 또한 제주 신화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바로 현장에서 살아 생동하며 주민들의 삶의 헌장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심방의 입을 통해 엮어내는 본풀이는 제주 신화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번 제주학총서 제50호 《제주 신화, 본풀이를 만나다》(비매품)는 제주 신화의 특성을 일반신본풀이, 당본풀이, 조상신본풀이 등에 대한 다양한 텍스트와 해석을 통해 엮어내고 있다. 제주 신화에 관심 있는 주민들과 독자들이 오롯이 제주의 본풀이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집필에는 김헌선, 신연우, 현승환, 조현설, 최원오, 이수자, 김형근, 조정현, 권태효, 강소전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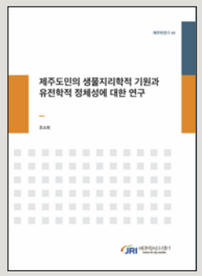
제주학 지원사업

2020 제주학 연구비 공모 지원 사업

제주학 연구비 공모 지원 사업으로 기획주제 2건・자유주제 3건이 선정되어, 총 5건의 제주학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제주학연구비 공모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발간된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제주학 연구 67 성 이시돌 목장 테쉬폰 생활문화 조사(이용규・양성필)
제주학 연구 68 제주도민의 생물지리학적 기원과 유전학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조소희)
제주학 연구 69 제주신화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 연구-그리스신화의 경우와 비교하여(양영수)
제주학 연구 70 이어도설화 스토리텔링방안 연구-장소성을 중심으로(주민욱・최미경)
제주학 연구 71 정조의 제주통치론(김호)











2020 제주학 총서 및 번역서 출판비 지원 사업

제주학 총서 및 번역서 출판비 지원 사업으로 2차례 공모를 실시하여, 총서 3건・번역서 1건이 최종 발간됐다. 발간된 저서는 다음과 같다.



제주학 총서 46
《일제강점기 제주 지명 문화 사전》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지도, 문헌, 논문 등에서 쓰인 제주 지명을 목록화한 사전이다. 일제강점기는 보통 1910년 국권 강탈로 대한제국이 멸망한 뒤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일제 강점 하의 식민 통치 시기인 35년여간의 시기나 시대를 이르는 역사 용어 가운데 하나이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 미국 사람에 의해 쓰이거나 간행된 문헌이나 논문, 지도, 지형도 등에 쓰인 제주 지명을 목록화하고, 그 지명이 오늘날 어디를 이르는지, 오늘날은 어떻게 쓰이는지 등을 보이는 사전이다. 각 지명 표제어뿐만 아니라 그 지명의 유래, 변천, 문화적 의미를 덧붙여 기술함으로써 사전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저자: 오창명



제주학 총서 47
《제주 돌문화경관 연구》
제주 돌문화의 개념과 가치를 검토하고, 옛 문헌을 통해 돌문화 관련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제주 돌담을 중심으로 하도리・고산리 밭담의 돌문화경관으로서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제주 돌문화라는 보편적인 연구주제 속에서도 그동안 산발적이고 다양하게 제시되었던 돌문화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고, 보다 대중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저술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저자: 정광중・강성기



제주학 총서 48
《제주 표류인 이방익의 길을 따라가다:중국답사기》
제주인 이방익(1757-1801)은 9개월에 걸쳐 중국을 표류했다. 그와 관련된 기록으로는 '표해록', '표해가', '서이방익사' 등이 있다. 저자는 이방익의 중국 표류 경험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지속해왔다. 이번엔 저자가 직접 이방익이 다녀갔던 현장을 답사하고 문헌 기록들을 비교 검토하여, 이방익 연구에 현장성을 더했다.

저자: 권무일



제주학 총서 49
《재일(在日)을 산다-어느 시인의 투쟁사》
김시종 시인과 사회평론가 사다카마코토의 대담집인 『「在日」を生きる ある詩人の闘争史』(2018)의 일-한 번역서이다. 최근 일본에서 일고 있는 내셔널리즘의 풍토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우려, 신인이 변함없이 취해야만 할 자세와 정감적 행동의 폐해, 일본사회의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차별, 일본 문인들의 전쟁 책임, 남북한과 일본의 관계를 바라보는 김시종 시인의 폭넓은 시선을 엿볼 수 있다. 어린 시절을 제주에서 보내다 4・3에 연루되어 일본행을 선택한 김시종 시인. 조선적 재일제주인으로 살아 온 그의 시선을 통해, 얽히고설킨 한국과 일본 근현대사의 한 단면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이창익

제주학 학술세미나 지원 사업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연구단체의 연구 활성화 및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학술세미나 개최 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1개 기관만 지원할 수 있었다. 지원금을 받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탐라신화의 동아시아적 위상과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가졌다.

제주어 연구 사업

'제주어 눌' 큰큰하게 눌어보게마씸!

제주어, 유네스코 소멸 위기 언어 분류 10주년 기억 행사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어 포럼 '제주어를 눌다'를 12월 8일(화) 오후 2시부터 제주연구원 윗세오름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2010년 제주어가 유네스코 소멸 위기 언어로 분류된 이후 10년 동안의 변화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자리로 기획된 것이다.

강영봉 제주대학교 명예교수의 '제주어, 10년을 돌아보다'라는 주제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1, 2부로 나눠 행사가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제주어 보전과 전승에 참여하는 여러 기관과 단체 담당자가, 2부에서는 제주어 보전에 참여하는 문화 활동가들이 자신들이 진행하는 제주어 사업과 활동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부 참가자는 강태군(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장), 권미소(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미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김보향(제주어연구소 이사), 김성룡(제주어교육연구회장), 김남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정숙(제주어보전회 사무국장) 씨이다.

2부 참가자는 김은자(사랑스런제주어밴드), 박순동(뚜럼브라더스), 양정원(제주어 가수), 이애리(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장), 정민자(극단 세이레), 최형석(KCTV 보도국 팀장), 현상용(KBS '삼춘이영 조케영' PD) 씨 등이다. 부대 행사로 정민자(극단 세이레) 씨의 제주어 시낭송, 양정원, 뚜럼브라더스, 제라진소년소녀 합창단의 제주어 노래 공연, 제주어 캘리와 첼로와의 만남(김효은, 문지윤) 등이 펼쳐졌다. 한편, 제주학연구센터는 이 행사에서 제주어 연구자, 활동가의 정보 공유와 의견 수렴의 장을 정례화하는 제주어포럼 '눌'의 창립을 제안하였다.

"몰은 뚬나게 부리곡 쉐는 세나게 부리라"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



제주학연구센터는 2020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으로 제주의 목축과 관련한 어휘와 민속 등을 조사하고 구술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 사업의 결과물로 발간된 구술 자료집《몰은 뚬나게 부리곡 쉐는 세나게 부리라》에는 중산간 마을인 '한경면 산양리, 서귀포시 하원리, 남원읍 수망리, 조천읍 선흘리'를 대상으로 8차례 현장 조사한 결과가 생생한 제주어로 기록되었다. 또한 조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제주 목축의 언어와 민속》도 발간하였다.

'몰르는 거 싯건 들어봅서'

제주어종합상담실 운영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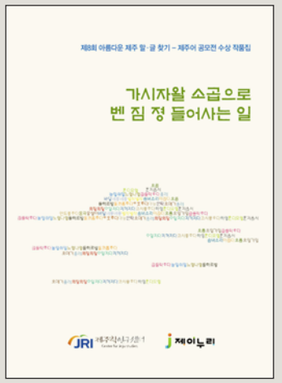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어종합상담실' 운영을 통해 제주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상담자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제주어 실시간 상담 창구인 '들어봅서 전화(1811-0515)'와 '전자우편(jejueo0515@hanmail.net)' 등을 통해 진행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도 제주어종합상담실 상담자료집《몰마농고장은 수선화마씨게》도 발간하였다.

이 자료집은 2020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 총 402건의 상담내용을 단어, 구와 문장, 표기, 뜻풀이,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제8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 제주어 공모전





제주학연구센터는 인터넷신문 제이누리와 공동 주최로 제8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 제주어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올해는 학생 부문을 신설하여 2020년 5월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일반부 81편, 학생부 97편이 접수되었다.

그 중 21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는데 △대상에는 김미화 씨의 '삶'이, △일반 부문 최우수상에 김신자 씨의 '아버님의 몰른 입상귀에 물 흠빡 주고정 ᄒᆞ우다', 학생부문 최우수상에 제주여자고등학교 윤은지 학생의 '숨비소리'가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11월 6일 제주연구원에서 열렸다. 한편, 수상한 작품을 모아《가시자왈 소곱으로 벤 짐 정 들어사는 일》이라는 제목의 수상작품집을 발간하였다.



쉽고 재미있는 《제주어 길라잡이》 발간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쉽고 재미있게 읽으면서 제주어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쉽고 재미있는 《제주어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제주어의 음운·문법·어휘·담화 등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고 삽화와 사진을 곁들이고 있다. 제주어에 대한 도민들과 이주민들의 갈증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쉽고 재미있는 제주어 책을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다.

집필은 강영봉, 김순자, 김미진이 담당하였다.

제3회 《(가칭)제주어대사전》 편찬·자문위원회의 개최

2020 제주어대사전 편찬 사업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2024년을 목표로 《제주어대사전》 편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차년도인 2020년에는 6,000여 개의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 수정, 용례 추가 등의 작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제주어 용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그동안 발간된 《제주어 구술 자료집》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도 하였다. 2020년 제주어대사전 사업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집필 세부 지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3회 '(가칭)제주어대사전' 편찬·자문위원회의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서면으로 진행하고 의견을 받았다.

《2020년도 제주어 구술자료집》(29~36권) 발간

제주어 구술 채록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제주어 자료를 일반 대중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어로 대역한 《2020년 제주어 구술자료집》 총 8권을 발간하였다.

2017년부터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2014~2016)'의 결과물을 기초자료로 추가 조사, 표준어 대역, 주석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2020년에 8개 마을에 대한 자료 발간으로 총 36개의 구술자료집이 완성되었다. 또한, 그동안 발간된 36권의 주석 내용을 한데 모아 뜻풀이와 예문을 정리하여 《제주어 구술 주석자료집》도 발간하였다.

제주어의 체계적인 교육 위한 방향 제시

제주어 교육 실태 조사 연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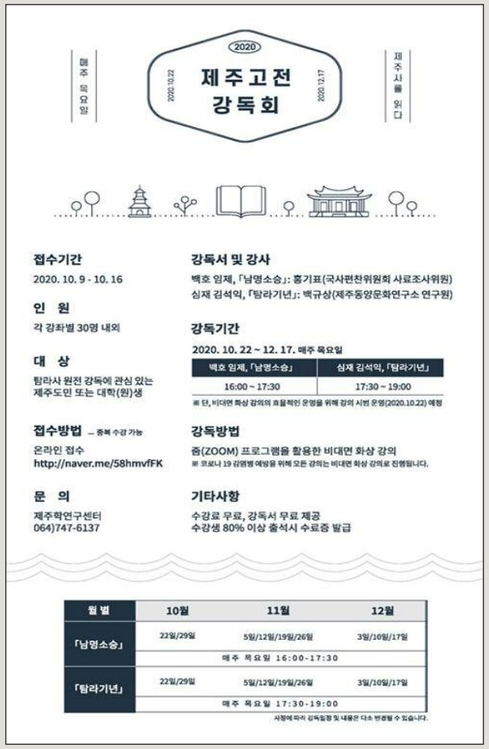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어 교육의 실태와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제주어 교육 실태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주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지를 개발하고, 일반인 300명,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제주어 교육을 진행하는 10개의 기관과 단체를 방문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를 분석하고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발간한 보고서에서 제주어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 제주어 교육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2020 제주고전 강독회 운영

제주학연구센터는 2020년 10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2020 제주고전 강독회'를 운영했다. 2018년부터 진행된 '제주고전 강독회'는 탐라의 역사문화 관련 한문 원전에 관심 있는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제주 고전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백호 임제(白湖 林悌, 1549-1587)의 《남명소승(南溟小乘)》과 심재 김석익(心齋 金錫翼, 1885-1957)의 《탐라기년》을 읽었다. 모든 강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 화상 강의로 운영됐다.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

경종·영조대 번역 및 교정 교열

제주학연구센터는 조선시대 1급 관찬사료인 《승정원일기》 제주 기사를 추출하여 번역·정리하고 있다. 2020년에는 '《승정원일기 제주기사(Ⅳ)-경종·영조대》 번역 자료집을 발간했다.

일본 소재 신문 제주기사 번역

프란게문고 소장 제주기사 번역 사업

제주학연구센터는 광복 후부터 1949년까지 일본에서 발행된 신문, 기관지, 통신 등에 실린 제주 관련 기사를 수집·번역하여 공개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국립국회도서관 '프란게문고'에 정리된 재일조선인 발행 신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번역하고 있다.

고문서 해제 발간 상예리 문서 해제 사업

제주학연구센터는 서귀포시 상예리 마을 고문서류 및 정리, 탈초 및 해제 작업을 진행했다. 고문서(특히 토지매매문서 등)에는 제주지역의 옛 지명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문서 탈초 및 해제 번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조사를 통해 지명 연구에 대한 성과를 얻고자 했다. 또한 고문서에 나타나는 이두 문자들의 다양한 용례를 확인하고, 주석을 달아 제주지역의 매매나 거래의 유형 등 물가 정보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제주 유배사 체계적 정리 위한 유배 문화 자원 조사 사업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유배인 관련 역사 문헌 자료, 민·관 소장 유배 문학과 관련 유적 등에 산재한 제주지역 유배사를 체계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제주 유배 문화를 역사, 문학, 콘텐츠 분야로 나눠 집대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해녀 문화 조사 사업

마을기록화사업(해녀문화조사)

제주학연구센터는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2리를 대상으로 해녀문화 조사사업을 진행했다. 마을 주민 생애사를 구술 채록하고, 해녀문화와 관련된 유・무형 자산의 변화상을 기록하는 등 사라져가는 해녀문화의 체계적인 수집・정리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제주학 교류・정책・교육 사업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연구 네트워크의 확장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0년 업무협약 체결기관은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4월 23일), 곶자왈공유화재단 곶자왈연구소(5월 27일), 한국방언학회(7월 7일)이다.



5월 27일 체결한 곶자왈공유화재단 곶자왈연구소와의 학술교류협력 협약

제주학연구센터 10년, 종합적 성찰과 그 과제

제주학 정책 세미나



제주학연구센터는 5월 20일 제주연구원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1년 개소 10주년을 맞는 제주학연구센터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제주학연구센터 각 연구원들이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어, 제주 역사, 교류 및 정책 사업별로 지난 10년 간 수행되어 온 사업 성과들을 정리・발표했고,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제주학연구센터의 미래를 위해 중지를 모았다.

제주학 선구자 '부종휴 선생님의 발차취를 따라서'

제주학연구센터 개소 9주년 기념 특강



제주학연구센터는 8월 12일 센터 개소 9주년을 맞아 '제주학 선구자 부종휴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강사는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이 맡아주었다. 이번 특강은 제주학 선구자 부종휴 선생의 삶과 학문세계를 돌아보고, 부종휴 선생이 걸었던 '부종휴 만장길'(구좌읍 만장굴 일대)을 함께 걷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앞으로도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애쓴 인물을 발굴하여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제4회 제주학대회 '근대성과 제주정체성', 제주학 주간 운영

제주학연구센터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근대성과 제주정체성'을 주제로 제4회 제주학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주학대회 기간을 제주학 주간으로 선포하고 학술대회, 제주학 아카이브展・명사 초청 강연・탐방・책 나눔 행사 등 시민들이 쉽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모든 행사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됐으며, 시민들이 제주학대회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주요 행사는 온라인으로 중계되었다.

제2기 제주학 시민학교: 제주학 개론 I

홍기표·조성윤·김윤수 선생 강사 참여

제주학연구센터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제2기 제주학 시민학교: 제주학 개론 I'을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제주학의 각 분야인 제주 역사, 제주 신화, 제주 사회를 폭넓게 다루었으며, 강사진으로는 홍기표 전 성균관대 사학과 겸임교수, 조성윤 제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김윤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예능 보유자가 참여했다.
모든 강의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강의 영상은 유튜브 '제주학연구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 인권 활동가 이야기: 사람과 사람》 발간

찾아가는 제주문화 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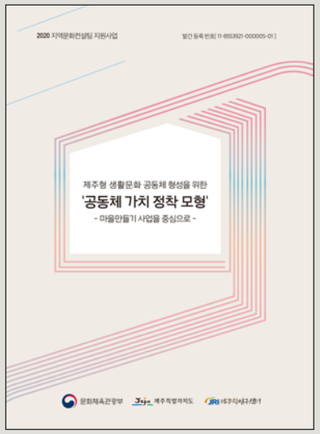


제주학연구센터는 '찾아가는 제주문화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6월 26일부터 7월 2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제주인권활동가 이야기: 인권카페 "제주의 사람과 사람"'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평화,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등 제주지역 인권의 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섯 명의 인권 활동가들을 초대해 인권 운동에 동참하게 된 배경, 현재 제주지역 인권 운동 현황, 인권 운동 당시 겪었던 에피소드 관련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 프로그램에는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센터장, 고명희 前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이연희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한용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사무처장, 안명희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이 참여했다. 대담 내용은 (제주학 총서 45)《제주 인권 활동가 이야기: 사람과 사람》(비매품)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

대행・공모 사업

제주 호적중초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의 의뢰를 받아, 제주도내 호적중초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조사하고, 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기초 준비 작업을 수행했다. 현지 조사 결과,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동일리 등 총 15개 마을에서 약 820여 책에 달하는 호적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확인된 자료는 모두 목록화 작업 및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각 마을별로 영인본을 제작하였다. 또한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도내외 문화재 지정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호적중초의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문화재 지정 후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제주형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동체 가치 정착 모형' 개발

2020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제주학연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2020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했다. 자세하게는 "제주형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동체 가치 정착 모형'–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진행해 온 여러 마을만들기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제주지역에 적합한 마을만들기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1년 주요 사업 일정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운영 사업

사업명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과정 개설**
내 용	시민 대상의 아키비스트 양성 과정을 통해, 시민이 직접 생산하고 함께 구축해나가는 제주학 아카이브 구현
일 정	● 홍보 및 모집: 2021년 3월 ● 개강: 5월(10주 과정)

사업명	**제2회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 수집**
내 용	사진영상 공개수집 공모전 개최. 시민들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을 법한 사진과 영상 주제를 선정하고,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의미한 제주학 관련 콘텐츠를 발굴하여, 도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자료 축적
일 정	● 홍보 및 공개수집: 2021년 3월~ 8월 ● 심사 및 시상: 2021년 9월~10월 ● 공개수집 자료 아카이브 업로드 및 콘텐츠화: 2021년 11월~12월

제주학 지원 사업

사업명	**2021 제주학 연구비 지원 사업**
일 정	● 공모 기간: 2021년 3월 ● 서류 접수 기간: 2021년 3월 ● 선정 공고: 2021년 3월 ● 연구 수행: 2021년 4월~11월 ● 보고서 발간: 2021년 12월

사업명	**2021 제주학 총서 및 번역서 출판비 지원사업**
일 정	● 공모 기간: 2021년 2월 15일 ~3월 1일 ● 서류 접수 기간: 2021년 3월 ● 선정 공고: 2021년 3월 8일 ● 연구 수행: 2021년 4월~11월 ● 단행본 제출 및 출간: 2021년 11월

제주어 연구 사업

사업명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
내 용	사라질 위기에 놓인 제주 전통과 관련한 민속 문화와 제주어를 조사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
일 정	● 2021년 3월~12월

사업명	**제주어 종합 상담실 운영 사업**
내 용	제주어의 전승과 보전, 제주도민 등의 제주어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간 제주어 상담 전화 '들어봅서'를 운영하고 상담 자료집 발간
일 정	● 2021년 3월 26일: 제주어 종합상담실 개소 2주년 기념일 ● 2021년 1월~12월

사업명	**제주어 공모전**
내 용	제주의 언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승・보전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주어 동영상과 글쓰기 공모 진행
일 정	● 공모 기간: 2021년 5월~10월 ● 시상식: 2021년 11월 6일

사업명	**제주어 총서 발간 사업**
내 용	제주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제주어 책자 발간
일 정	● 2021년 3월~12월

사업명	**(가칭) 제주어대사전 편찬 사업**
내 용	제주어 말모이 작업인《제주어대사전》편찬을 위한 집필, 새어휘 조사 작업
일 정	● 2021년 3월~12월

사업명	**구술로 기록하는 제주의 세시풍속 조사 사업**
내 용	제주의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구술 채록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전사하여 구술 자료집 발간
일 정	● 2021년 3월~12월

사업명	**제주어 포럼 행사**
내 용	제주어의 대중화를 위해 제주어 관련 활동가와 기관 등이 교류하는 '제주어 포럼 '눌"개최
일 정	● 2021년 10월(제주어 주간)

제주역사 편찬 사업

사업명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 사업**
내 용	조선시대 1급 관찬사료인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왕대별 제주 관련 기사를 추출하여 역주하고 자료집 발간
일 정	● 2021년 3월~12월

사업명	**일본 소재 신문 제주기사 번역 사업**
내 용	광복 후부터 1949년까지 일본에서 발행된 신문, 기관지, 통신 등에 실린 제주 관련 기사를 수집・번역하여 공개
일 정	● 2021년 3월~12월

사업명	**고문서 해제 발간 사업**
내 용	제주도내 고문서 가운데 역사성과 문중 고문서로서 가치 있는 고문서를 발간하여 탈초, 해제 자료집 발간
일 정	● 2021년 3월~12월

사업명	**제주고전 강독회**
내 용	제주도내 일반인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탐라의 역사문화와 관련 깊은 원전을 강독 해설하여 한문 해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사 교육 강좌 운영
일 정	● 2021년 3월~12월

멸실 위기 민속 문화 연구 사업

사업명	**멸실 위기 민속 문화 연구 사업**
내 용	멸실 위기에 처한 제주의 민속 문화 중 가장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조사 연구 진행. 이 사업에서 생산된 자료를 기반으로 학술세미나, 특별전시회, 디지털 콘텐츠화 등을 함께 수행할 예정
일 정	● 연구진 구성: 2021년 2월 ● 문헌 및 현장 조사: 2021년 3월~9월 ● 자료 정리 및 원고 집필: 2021년 9월~10월 ● 학술세미나 및 특별전시회: 2021년 10월 ● 아카이브 업로드: 2021년 11월~12월

해녀 문화 조사 사업

사업명	**해녀 문화 조사 사업**
내 용	해녀문화가 보존되어 있는 제주도내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주민 생애사 구술 채록, 해녀문화 관련 유・무형 자산 등의 변화상을 기록하는 사업
일 정	● 사업계획 수립 및 마을 선정: 2021년 2월 ● 마을 관련 문헌 조사 및 현장조사 수행: 2021년 3월~11월 ● 성과물 발간: 2021년 12월

제주학 교류・정책・교육 사업

사업명	**제5회 제주학대회**
내 용	제주학연구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제5회 제주학대회 개최
일 정	● 2021년 10월

사업명	**대외 교류 및 정책 사업**
내 용	제주학 네트워크 구축, 협력 사업, 정책 세미나 등 수행
일 정	● 2021년 2월~12월

사업명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제주 바투리》발간 사업**
내 용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제주 바투리》발간 및 배포
일 정	● 발간: 2021년 6월, 12월(2회, 반년간)

사업명	**찾아가는 제주학 이야기**
내 용	제주학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일 정	● 2021년 2월~11월



제2회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수집

- 주제: <제주의 관혼상제>

제주학연구센터는 2021년 한 해 동안 제주인의 관혼상제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 수집합니다.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포함한 일생의례 등 제주의 역사 속에서 전승되어온 우리 제주인의 관혼상제 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아래의 방법으로 응모 바랍니다.

- **기간**: 2021. 3.15. ~ 8. 14.(150일)
- **분야**: 사진 부문 / 동영상 부문
  * 제출 자료는 출판 등으로 공개되지 않은 저작권 소유 작품이어야 함
  * 제출 자료에 대한 저작권료는 촬영 시기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
- **주제**: '제주의 관혼상제' 관련 사진과 동영상
- **분량**: 제한 없음(예산 범위 내에서 저작권료 지급)
- **제출 방법**: 온라인 업로드, 이메일, 우편, 방문 제출
  *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저작권자 자택으로 출장 접수도 가능

- **시상식**: 2021년 10월 중(저작권료와 별도로 시상금 지급. 대상: 50만원 상품권 등)

- **제출처**: jhcho@jst.re.kr / 제주시 동광로 51, 3층 제주학연구센터

- **문의처**: 제주학연구센터(064-747-6138)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